

IBKS CARBON FINANCE

Invitation to Better Carbon Story

WEEKLY REPORT
VOL.5
2025.07.14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TOP HEADLINES

- IBK투자증권-이더블유씨,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선정
- 2024년 유럽 해운 부문 배출량 5.2% 증가
- EU ETS에 탄소 제거 크레딧 도입 논의 본격화, "점진적 통합 필요"
- WFE, 영국에 탄소배출권 금융상품 지정 및 세금 면제 요구
- EU, 저탄소 수소 정의 및 70% 배출 감축 기준 설정
- 태양광 발전, 6월 EU 전력 공급원 사상 첫 1위
- 영국, 재생에너지 투자 안정성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철회
- ICAO, 2035년까지 CORSIA 배출권 수요 10억 톤 초과 전망
- 2025 Q2, CDR 시장 규모 2배 급성장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 이더블유씨,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선정

IBK투자증권이 기후변화 대응 전문기업 이더블유씨 (EWC)와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이 '202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가 진행하는 동
사업은 2030 국가온실감축목표 (NDC) 달성에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활용하기 위함.

IBK투자증권과 EWC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청정 조리 국가 행동 계획'
에 포함된 '기후 및 건강 친화형 가정 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예정

동 사업은 방글라데시 쿨나 (Khulna) 지역에 인덕션 20만대를 보급,
장작·가축 분뇨 등을 태워 조리하는 기존 방식을 대체함으로써 연간
32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 주민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

IBK투자증권은 경제성 분석, 투자계획 수립, 탄소배출권 발급·공급
등을 수행하고, EWC는 현지 조사, 탄소배출량 산정, 모니터링 계획
수립 등을 맡을 계획

2024년 유럽 해운 부문 배출량 5.2% 증가

유럽해사안전청 (EMSA)이 2024년 해운 부문의 배출량이 전년대비 5.2% 증가한 9,808만 톤을 기록, 전체 EU ETS 배출량의 약 9%를 차지했다고 밝힘.

2024년은 해운 부문이 처음으로 EU ETS에 포함된 해로, 2024년 보고된 확정 배출량에 대한 해운사들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첫 번째 배출권을 제출해야 함.

2023년 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영향으로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의 선박을 공격함에 따라 해운사들이 수에즈 운하 대신 희망봉 또는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게 된 것이 2024년 해운 부문 배출량 증가의 주원인으로 지목

수에즈 운하 이용 시 평균 37일이 소요되던 상하이~로테르담 구간이 희망봉 우회로 인해 약 11일이 지연, 연료 사용량은 최대 30%까지 증가. 특히 컨테이너선 배출량은 42% 급증했으며, 세계 최대 선사 MSC는 전체 해운 배출량의 15%를 차지

EU ETS의 점진적 도입에 따라 2024년 해운업계는 약 25억 유로 (약 4조 원)의 탄소비용을 부담할 전망이며, 2027년에는 92억 유로 (약 15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올해는 메탄 및 아산화질소 배출도 보고 대상에 포함됐으며, 2026년부터 비용 부과 예정

EU ETS에 탄소 제거 크레딧 도입 논의 본격화, "점진적 통합 필요"

유럽연합이 2030년 이후 탄소 제거 (CDR) 크레딧을 배출권거래 제도 (ETS)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 CDR 유관 업계는 ETS 지침 개정을 위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공공의견 수렴에 1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

주요 제안 내용:

- 배출권 총량은 유지하며 실질적 탄소 제거만 인정하도록 CDR 크레딧과 배출권을 1:1로 대체
- 영구적으로 탄소를 제거하는 기술만 인정
- 기업의 CDR 크레딧 구매 의무화 도입
- CDR 기술의 높은 비용을 감안해 정부 보조금 (차액 계약) 제도 도입

업계는 탄소 제거 크레딧이 ETS에 포함될 시 철강·시멘트 등 감축이 어려운 산업도 넷제로에 기여할 수 있고, ETS 자체도 장기적으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CDR을 ETS에 점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

CDR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의 직접 포집 혹은 산림·토양·기술 등을

통해 영구적으로 탄소를 제거하는 방식. 해당 기술들은 비용이 높고 초기 수요가 적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WFE, 영국에 탄소배출권 금융상품 지정 및 세금 면제 요구

국제 거래소 및 청산소 연합체인 세계거래소연맹 (WFE)이 영국 정부에 탄소배출권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고 이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할 것을 촉구

WFE의 주요 제안 사항

1. **세금 면제**: 시장참여 확대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시 VAT 면제
2. **탄소배출권 금융상품 지정**: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3. **법적 지위 명확화**: ‘개인 자산’ 또는 ‘청구권’ 등으로 분류
4. **ESG 공시 기준 강화**: 기존 TCFD 외에 ISSB, TNFD* 등 추가
5. **국제시장 참여 확대**: 파리협정 6조에 따른 국제 탄소크레딧 거래에 적극 참여

WFE는 탄소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금, 법, 회계, 금융 규제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전 정부적 접근’ (whole-of-government approach)이 필요하다고 강조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기후변화가 기업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공개하도록 만든 국제 기준

*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전 세계 공통의 ESG 공시 기준을 만드는 조직

*TNFD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생물다양성, 수자원 등 자연자본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는 기준

EU, 저탄소 수소 정의 및 70% 배출 감축 기준 설정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는 저탄소 수소의 정의 및 생산 인증 방법론, 배출 기준을 담은 법령 초안을 공개

동 법안은 ‘저탄소 수소’란 화석연료를 사용하더라도 탄소 포집·저장 (CCS)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화석연료 대비 최소 70% 이상 줄인 수소 혹은 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자력 등 저탄소 전력을 활용해 생산한 수소를 의미한다고 규정

수소 생산 과정 전반의 탄소 배출량(메탄 누출, 에너지 사용, 운송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CCS는 누출 없는 영구저장 조건 충족 시 배출 감축이 인정될 계획. 다만, 원자력 기반 수소 생산 규칙은 2026년까지 공개 협의를 거쳐 추가 확정될 예정

동 법안은 전기화가 어려운 항공, 해운, 산업 공정 등에서 저탄소 수소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EU 내에서 생산되는 수소뿐 아니라 Non-EU국가에서 수입되는 수소에도 동일하게 적용

현재 EU는 연간 약 72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나 대부분 화석연료 기반이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기반의 녹색 수소 1천만 톤 생산 및 1천만 톤 수입이 목표

태양광 발전, 6월 EU 전력 공급원 사상 첫 1위

2025년 6월, 태양광 발전이 EU 전력 생산의 22.1%를 차지, 전년 동월 (18.9%) 대비 상승한 수치를 보이며 최초로 EU 전력 공급원 1위를 차지했다고 영국의 국제 기후, 에너지 정책 연구소 엠버 (Ember)가 발표

태양광 발전량은 기록적 일조량 및 태양광 설비 확대로 45.4 테라와트시 (TWh)를 기록.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등 최소 13개 EU 회원국이 월간 태양광 발전량 신기록을 달성

6월 전력 발전 중 원자력은 21.8%, 풍력은 15.8%를 차지. 반면, 석탄의 비중은 6.1%로 사상 최저치 기록. 특히 EU 27개국의 석탄 발전량 중 약 80%를 차지하는 독일과 폴란드에서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

상반기 전체로는 풍력·수력 발전량의 부진을 보완하기 위한 가스 발전의 증가(19%)로 화석연료 사용이 전년대비 13% 증가했으며, 전력 수요도 2.2% 증가

향후 과제로는 비일조 시간대의 안정적 전기 공급을 위한 배터리 저장 및 전력망 유연성 확보가 제기

영국, 재생에너지 투자 안정성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철회

영국 정부는 전력시장 개편 검토 끝에 전력도매가격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zonal pricing)’ 도입을 철회하고, 기존의 ‘전국 단일 전기요금제 (national pricing)’를 유지할 것을 공식 발표함.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에 따라 전력망 혼잡,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 부각되자 정부는 지역별 요금제를 통해 발전소 인근 지역에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고, 산업 입지를 유도할 계획이었으나, 소비자 형평성 문제 및 투자 불확실성 우려로 철회

대신, 정부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의 입지 선정 및 전력망 연결 계획을 주도하고, “Rewire Britain”기조 하에 송전망 현대화 및 발전 제약 보상금* 절감에 집중할 계획

국가에너지시스템운영자 (NESO)에 따르면, 전력망 업그레이드 완료 시, 2030년까지 최대 40억 파운드 (약 7조 원)의 제약 보상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제약 보상금(constraint payments)

: 전력망 제약으로 인한 출력 감소에 대해 발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 비용

ICAO, 2035년까지 CORSIA 배출권 수요 10억 톤 초과 전망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국제항공 탄소 상쇄 및 감축 제도 (CORSIA)에 따른 탄소배출권 수요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해 2035년까지 누적 10억 톤을 초과할 것이라 전망

ICAO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첫 단계 (Phase 1)에서는 약 1억 톤의 배출권 구매가 예상되며, 이후 2027년부터 2035년 (Phase 2)에는 더욱 큰 수요가 이어질 전망

다만, 현재 시장에 인증된 배출권은 2천만 톤 미만으로 공급 부족이 우려. 정부의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이중계산 방지를 위한 ICAO의 규제가 엄격해 실제 시장에 인증된 배출권이 제한적임.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경우,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최대 51달러 (약 7만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어 국제 항공업계의 배출권 확보 및 SAF 도입 확대가 과제로 대두

2025 Q2, CDR 시장 규모 2배 급성장

2025년 2분기 탄소 제거 (CDR) 크레딧 거래량이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급성장하며 2,920만 톤을 기록. 이에 따라 크레딧 구매를 위한 지출도 사상 최대인 39억 달러 (약 5.4조 원)를 기록

2분기 시장 성장은 대부분 바이오매스 탄소 제거 및 저장 (BiCRS)* 경로에서 이뤄졌으며, 전체 거래량의 99%를 차지. 구매 측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확대를 선도. 미국의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업 AtmosClear와 675만 톤, 캐나다의 탄소 제거 솔루션 기업 CO280과 360만 톤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기업들의 신규 계약 물량도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하는 등 강한 성장세를 보임. 이러한 성장세는 탄소 제거 기술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 특히 빅테크의 적극적 참여가 시장 성장을 견인

*바이오매스 탄소제거 및 저장 (BiCRS)

: 탄소제거 (CDR)기술 중 하나로, 식물 (바이오매스)을 이용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를 다시 안정적으로 저장하는 방식

: 식물(바이오매스)이 자라며 CO2를 흡수

→ 수확 후 태우거나 가공해 '탄소 덩어리' (예: 바이오차)를 생성

→ 땅에 묻는 등의 방식으로 탄소를 저장 및 봉인

IBKS 탄소금융본부 사업

탄소배출권

■ 규제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국내 탄소배출권 장내 거래(KRX)
- 국외 탄소배출권 현물 거래(EU, 중국 등)

■ 자발적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VERRA, GS 등 매매
- 비규제 글로벌기업 대상 배출권 공급

■ 국내외 탄소배출권 사업개발

- 규제 및 자발적 시장 통용 가능 국내외 배출권 사업 개발 및 배출권 확보

환경에너지 파생상품

■ 에너지·원자재 선물 거래

- 탄소시장 유관 종목 개발 및 제공
- 원유, 납사, 곡물, EU배출권 등

■ 탄소배출권 펀드 개발 및 운용

- 업종별 특화 탄소배출권 펀드 상품화
- 국내외 탄소배출권 펀드 참여

■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조달

- PPA Offtaker / Spot REC 중개 & 주선
- 국내 발전소와 글로벌 RE100 기업 연계

탄소 금융조달

■ 구조화 상품 개발 및 중개

- Clean-Tech 기업 & 기술 & 설비 투자
- 주식, 채권, 원자재 등 파생결합분야 확대

■ 친환경 자산개발 PF

-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 스마트팩토리, 친환경공정설비 도입 등

■ ESG 특화 벤처 투자

- K-Taxonomy 기반 평가 및 금융 제공
- 기업 성장 동력 & Value & 수익 확보

■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IBK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수수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K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20호
(2026.03.17 ~ 2027.03.16)

IBK투자증권 탄소금융부
carbon@ibks.com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